

나스닥,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불구 반도체 업종 강세로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파월 발언 불구 반도체 업종에 힘입어 나스닥 상승

•미 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 출발 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직후 하락 전환하는 등 여전히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 물론, 고용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줘 강세를 보이기도 했음. 다만, 전일에 이어 다우지수가 높은 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낙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 장 후반 하락 전환. 그러나 베이지북을 통해 임금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세 완화되고 있다는 발표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여 나스닥은 재차 상승 전환(다우 -0.18%, 나스닥 +0.40%, S&P500 +0.14%, 러셀2000 +0.04%)

특징 종목: 반도체 업종 강세 Vs. 테슬라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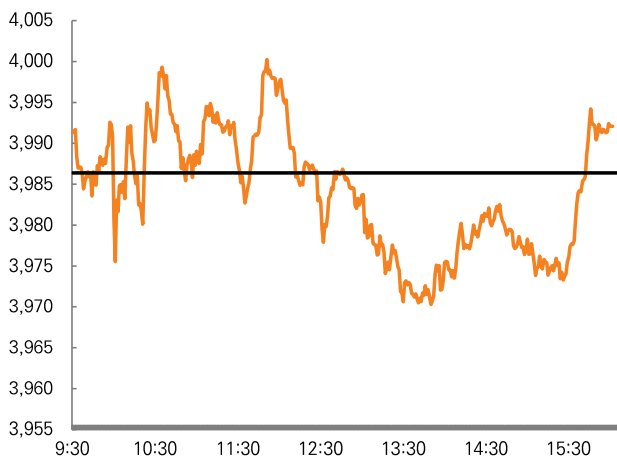
•테슬라(-3.04%)는 베른버그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유로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모델 Y SUV에 대해 미 교통 안전국이 기계 결함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영향을 주며 하락. AMD(+3.97%)는 VR 시장에서 확고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올해는 수익성 있는 데이터 센터 등으로의 사업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부각되자 강세. 엔비디아(+3.83%)는 CS가 AI 산업의 확대를 이유로 275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 힘입어 강세. 애플(+0.84%)은 웨드부시가 아시아 아이폰 수요를 바탕으로 목표가 상향으로 상승

한국 증시 전망: 애플 관련주 및 반도체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27%, MSCI 신흥 지수 ETF는 0.4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5.0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0%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장중 보험권 등락을 보였으나, 반도체 업종이 AI 산업에 대한 수혜 등을 이유로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7%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파월 연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으나 연준의 베이지북과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 등을 토대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줘 연준의 강경한 정책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 또한 우호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애플 관련주와 반도체 등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31.91	-1.28	상해종합	3,283.25	-0.06
KOSDAQ	813.95	-0.22	홍콩항셱	20,051.25	-2.35
DOW	32,798.40	-0.18	베트남	1,049.18	+1.09
NASDAQ	11,576.00	+0.40	유로스톡스 50	4,288.45	+0.22
S&P 500	3,992.01	+0.14	영국	7,929.92	+0.13
캐나다	20,347.53	+0.36	독일	15,631.87	+0.46
일본	28,444.19	+0.48	프랑스	7,324.76	-0.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① 파월 하원 발언 ② 고용지표

파월 연준 의장은 전일 상원에 이어 오늘은 하원에서 통화정책 보고서 관련 의회 청문회를 진행. 여기서 파월 의장은 올해 발표된 경제지표는 금리의 궁극적인 수준이 더 높아야 함을 시사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데이터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오늘 현재, 이전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고 언급. 결국 최고 금리 상향 조정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음. 더불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향후 낮은 주거 비용이 인플레이션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

3월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발표되는 고용과 물가 지표 등을 모두 지켜 봐야 한다고 언급해 전일 발언과 비슷하거나 일부 완화된 표현을 언급. 그렇지만, 낮은 장기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해 높은 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 금융시장은 파월 발언이 진행되며 달러 약세, 금리 하락을 보이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높은 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차 달러 강세 및 금리 상승으로 전환. 특히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견조한 고용지표 결과 여파도 이러한 추세에 힘을 실어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부각된 가운데 상승하던 주식시장도 하락 전환.

파월 연준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3월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고용과 물가 지표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해 관련 지표의 중요도가 높아짐.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미국 2월 ADP 민간고용보고서 결과 비농업 고용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11.9만 건에서 24.2만 건으로 증가. 특히 레저 및 접객업이 8.3만 건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해 여전히 고용시장은 견고함을 보여줌. 그렇지만, 고용 인력의 주간 단위 수치를 보면 2월 들어 둔화되고 있고 2월 후반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여기에 임금 수준도 비록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기존 직원 임금이 전년대비 7.3%에서 7.2%로 둔화된 가운데 이직자의 임금은 14.9%에서 14.3%로 둔화폭이 컸음.

더불어 미국 1월 채용공고는 지난달 발표된 1,123.4만 건을 하회한 1,082.4만 건을 기록했는데 레저 및 접객업이 19.4만 건, 금융이 15.1만 건, 건설이 24만 건 감소. 구인 비율도 6.5%로 지난달 6.8%를 하회했는데 레저 및 접객업과 금융 등이 1%p 이상 감소. 특히 해고율이 1.1%를 기록해 지난달 1.0%에서 증가했는데 지난해 1% 미만 기록을 뒤로하고 해고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결국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견고하기는 하지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한편,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에서 연준은 임금이 적당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발표. 전체적으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신용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연체율은 증가했다고 언급. 베이지북 발표 후 나스닥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상승 전환하는 등 시장은 안정을 보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7% 상승

테슬라(-3.04%)는 베른버그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유로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모델 Y SUV에 대해 미 교통 안전국이 기계 결함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영향을 주며 하락. 유기농 식품 회사인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28.05%)는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급락. 옥시덴털(+2.14%)은 버크셔가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에 상승했으나, 엑슨모빌(-1.46%), 셰브론(-0.63%)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 특히 코테라 에너지(-2.78%), EQT(-2.40%) 등 천연가스 관련 종목의 낙폭이 컸음. 천연가스 가 온화한 날씨 여파로 급락한 여파.

AMD(+3.97%)는 VR 시장에서 확고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올해는 수익성 있는 데이터 센터 등으로의 사업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부각되자 강세. 엔비디아(+3.83%)는 CS가 AI 산업의 확대를 이유로 275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 힘입어 강세. 온세미컨덕터(+5.59%)는 BMW 공급 계약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강세를 이어갔으며 퀄컴(+1.69%)은 분기 배당 상향 조정에 상승. 램리서치(+2.86%), AMAT(+1.96%) 등은 반도체 장비 시장이 2022년 819억 달러에서 2030년 1228억 달러로 성장할거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67% 상승. 애플(+0.84%)은 웨드부시가 견조한 아시아 아이폰 수요를 바탕으로 목표가를 상향하자 강세를 보였고 스카이웍(+2.39%), 퀴보(+1.28%) 등도 동반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54	대형 가치주 ETF (IVE)	+0.11
클린테크 ETF (CTEC)	-0.51	중형 가치주 ETF (IWS)	+0.11
소매업체 ETF (XLY)	-0.18	소형 가치주 ETF (IWN)	+0.10
온라인소매 ETF (EBIZ)	-0.28	대형 성장주 ETF (VUG)	+0.35
미국 인프라 ETF (PAVE)	+0.54	중형 성장주 ETF (IWP)	+0.33
핀테크 ETF (FINX)	+0.67	소형 성장주 ETF (IWO)	-0.01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94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03
클라우드 ETF (CLOU)	-0.23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25
사이버보안 ETF (BUG)	+0.1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37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03	미국 국채 ETF (IEF)	-0.03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21	하이일드 ETF (JNK)	-0.51
바이오섹터 ETF (IBB)	-0.68	신흥국 채권 ETF (EMBD)	+0.09
로봇&AI ETF (BOTZ)	+1.21	물가연동채 ETF (TIP)	-0.48
반도체 ETF (SMH)	+2.6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1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부동산	239.30	+1.32	+1.31	-5.87
IT	2,444.24	+0.84	+3.53	-1.20
유틸리티	333.28	+0.78	+3.13	-2.50
소재	515.12	+0.47	-0.62	-1.40
산업재	863.67	+0.23	+1.00	-0.21
커뮤니케이션	177.12	+0.19	+2.70	-5.13
필수소비재	751.67	+0.12	+0.76	-0.82
경기소비재	1,109.19	-0.26	-0.56	-4.97
금융	579.45	-0.47	-1.92	-5.21
헬스케어	1,469.81	-0.56	-0.52	-4.70
에너지	646.63	-1.02	-0.57	-3.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애플 관련주와 반도체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27%, MSCI 신흥 지수 ETF는 0.4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15.0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0%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최고 금리 상향 조정 언급과 3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 시사에 약세를 보인 미 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 특히 달러/원 환율이 22원이나 급등하며 원화 약세 기조가 뚜렷한 점도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 요인. 다만, 일부 테마성 종목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순매수로 코스닥은 제한적인 하락을 보임. 이에 KOSPI는 1.28% 하락했으나 KOSDAQ은 0.22% 하락에 그침.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장중 보험권 등락을 보였으나, 반도체 업종이 AI 산업에 대한 수혜 등을 이유로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7%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파월 연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으나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다우 지수 하락을 야기시켰으나, 그 영향도 전일 반영되었다는 점도 우호적

물론, 미국의 높은 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준의 베이지북과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 등을 토대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줘 연준의 강경한 정책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 또한 우호적. 더 나아가 전일 급등했던 달러/원 환율이 오늘은 되돌림이 유입되며 하락하는 등 원화 강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애플 관련주와 반도체 등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여전히 견고하나 둔화 조짐

미국 2월 ADP 민간고용보고서 결과 비농업 고용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11.9만 건에서 24.2만 건으로 증가해 예상치인 20만 건을 상회. 레저 및 접객업이 8.3만 건, 금융이 6.2만 건, 제조업이 4.3만 건, 교육 및 보건이 3.5만 건 증가한 반면, 건설은 1.6만 건 감소. 임금은 기존 직원이 7.3%에서 7.2%로 둔화된 가운데 이직자의 임금은 14.9%에서 14.3%로 둔화폭이 컸음.

미국 1월 채용공고는 지난달 발표된 1,123.4만 건을 하회한 1,082.4만 건을 기록했으나, 예상치인 1,060만 건을 상회. 구인 비율은 6.5%로 지난달 6.8%를 하회, 이직률은 3.8%로 유지, 해고율이 1.1%를 기록해 지난달 1.0%에서 증가.



달러화, 약세와 강세를 반복하는 등 방향성 제로

국제유가는 공격적인 연준의 금리인상이 결국 미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여기에 지난 주 원유재고가 40만 배럴 증가 예상을 하회한 170만 배럴 감소했으나 가솔린 재고가 110만 배럴 감소해 예상치인 180만 배럴 감소보다 낮았던 점도 부담. 천연가스는 온화한 날씨에 따른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4% 넘게 하락. 난방유도 2% 넘게 부진.

고용지표가 비록 견고했으나 둔화 조짐이 유입되며 달러화는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의 영향 등으로 재차 강세로 전환하는 등 변화를 보임. 다만, 그 폭은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등락을 보이며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음.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0.4% 내외 강세를 보인 가운데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 등은 달러 대비 강세폭이 컸음.

국채금리는 견조한 고용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자 전일 급등을 뒤로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임. 그렇지만, 여전히 이어진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재차 상승 전환했으며, 특히 전일에 이어 단기물의 상승폭이 컸음. 다만, 장 후반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임금 상승의 둔화 조짐이 있고, 미국 경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발표하자 장기물 중심으로 일부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했음. 한편,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43배를 하회한 2.35배에 그치는 등 채권 수요가 낮은 점도 장 중 금리 상승을 견인.

금은 달러화의 강세가 제한되자 보험권 등락을 보임. 구리 및 비철금속은 장중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승하는 등 전일과 다른 모습을 보임. 곡물은 옥수수가 미 농무부의 월간 세계 농업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공급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락. 밀도 동반 하락한 가운데 대두는 아르헨티나 대두 수확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05% 상승, 철근은 0.38%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6.66	-1.42	-1.56	Dollar Index	105.664	+0.05	+1.13
브렌트유	82.66	-0.97	-2.17	EUR/USD	1.0546	-0.03	-1.14
천연가스	2.55	-3.31	-7.58	USD/JPY	137.32	+0.12	+0.83
금	1,818.60	-0.08	-1.45	GBP/USD	1.1848	+0.15	-1.50
은	20.15	-0.44	-4.67	USD/CHF	0.9414	-0.04	+0.19
알루미늄	2,354.00	+0.17	-3.19	AUD/USD	0.6592	+0.12	-2.50
전기동	8,910.50	+1.68	-2.09	USD/CAD	1.3798	+0.32	+1.50
아연	2,975.00	+0.71	-4.51	USD/RUB	76.0501	+0.35	+1.25
옥수수	625.50	-1.26	-1.49	USD/BRL	5.1354	-1.09	-0.87
밀	687.50	-1.50	-3.17	USD/CNH	6.9689	-0.36	+1.31
대두	1,517.75	+0.18	+1.61	USD/KRW	1,321.40	+1.69	-0.09
커피	177.35	-2.85	-3.38	USD/KRW NDF1M	1,315.00	-0.11	+0.8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980	+1.58	-1.30	스페인	3.663	-5.90	-0.40
한국	3.712	+6.00	-4.80	포르투갈	3.511	-5.80	-6.60
일본	0.505	+0.10	-0.10	그리스	4.451	-4.90	-3.70
독일	2.646	-4.60	-6.50	이탈리아	4.428	-9.90	-13.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